

지역 소식통

부안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10일 도담이동발달센터 양현정 센터장을 초빙해 아동발달의 이해라는 주제로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이란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지도와 실제적 교육을 말한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발달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드림스타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적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가를 구성해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상시 의뢰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 5800만원 부과 · 고지

부안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627건 49억5,8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별 1/20이며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재산세 대비 1745건, 4억 2900만 원이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1/2씩 세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탁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기자

“철도산업 메카 정읍으로”

다원시스 정읍공장 전동차 본격 생산 스타트 연간 총 300량 · 간선형 전기동차 240량 예측

(주)다원시스 정읍공장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도차량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주)다원시스 정읍공장은 지난해 4월 정읍에서 첫 삼을 뜬 후 1년만인 올해 4월 공장을 준공했다.

시에 따르면 (주)다원시스 정읍공장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해 8만2,786㎡(2만 5,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1만 9,592㎡(연면적 2만4,277㎡) 지상 2층 규모로 국내 최장 1.2km 직선화 시험선과 조립·용접·도장·시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최신 시설을 갖췄다.

공장에서는 연간 전동차 300량,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40량을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에 약 5천



주)다원시스 정읍공장.

량(6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전동차 시장에 대비하고,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철도산업의 특성상 연관업종의 기업들의 정읍시 이전 러시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다원시스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철도차량 수주액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차 40량(572억) ▲서울교 통공사 2~3호선 196량(1,549억) ▲미안마 철도 현대화 사업(430억) ▲신안산선 복선전철(100량 1,477억) ▲한국철도공사 간선형 전기동차 358량(5,941억) 등 총 1조에 가까운 누적 수주액을 보이고 있다.

다원시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서울교통공사 4호선 신조전동차 218량(2,697억)을 수주했고 3,000여 대의 인도 철도차량 수주가 추가로 예상되고 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주)다원시스의 최초 상장 당시 매출은 300억 원이었으나 올해 목표는 상장 당시 매출액의 10배인 3,000억 원이며 향후 10년 안에 10배인 3조원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다원 유니버스로 재탄생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국제일의 땅콩 주산지인 고창군이 고창읍 신월마을에서 풋땅콩 첫 수확을 시작했다.

고창 풋땅콩 첫 수확... ‘농가 웃음꽃’

영남지방에 최고가 전망 납품

전국제일의 땅콩 주산지인 고창군이 고창읍 신월마을에서 풋땅콩 첫 수확을 시작했다.

풋땅콩은 과중 후 120일 경에 수확하는 것으로 일반땅콩에 비해 수확시기가 빠르고, 일반땅콩에 비해 수확량이 많아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볶음땅콩과 달리 찌서 급속 냉동 후 저장하면 연중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볶음땅콩보다 함양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41% 더 많은데 이는 삶는 동안 껍질에 있던 영양분이 알맹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번에 생산된 풋땅콩 대구와 부산 등 영남지방으로 전량 납품되고 있으며 가격은 11만원/25kg의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고창 풋땅콩(재배면적 30ha)은 서해

안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풋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고창땅콩은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황토밭과 많은 일조량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지난해는 대한민국의 농산물 대표주자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명절세트에 ‘고창 생알땅콩’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고창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풋땅콩은 정상적인 땅콩 수확기보다 한 달 이상 조기 수확할 수 있어 알맹이 일출률에 따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를 피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며 “내년에는 풋땅콩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재배기술 교육과 전용 품종(다양 세원)을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도내 공공도서관 첫 ‘비콘시스템’ 도입

열람실 좌석 예약서비스 등

정읍시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스마트화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도서관 임시 휴관 중 더 나은 독서 문화생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북 공공도서관 최초로 비콘서비스를 도입했다.

비콘시스템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로 이를 활용해 아이알림서비스와 열람실 좌석 예약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자녀의 도서관 방문과 퇴관 정보를 스마트폰 앱 푸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게 됐다. 특히, 모바일 좌석 배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도서관 열람실 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시민들은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감비를 통해서만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좌석 배정 기능을 탑재하면서 도서관 내 어디서든 위치의 제약 없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비콘시스템은 활용한 서비스들은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아이알림서비스는 부모와 가족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 검색엔진 알파스Q를 도입했다. 검색 UI(User Interface)를 개

선한 검색 자동 완성 기능과 최근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주제별로 카테고리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큐레이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정보를 먼저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읍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든 원하는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인생서가도 선보인다. 인생서가는 미취학 아동부터 60대 이상까지 일생을 모두 아우르며 인생의 경험과 가치를 더해주는 맞춤형 독서 플랫폼이다. 다양한 주제와 대상에 따라 서적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로 500여 종의 다양한 전자책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향기도시’ 밑그림 그리기 ‘착착’

발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

정읍시가 ‘정향누리’, 정읍의 향기를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해 10일 정읍향기도시(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연구진 등 16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읍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단이 될 향기도시 브랜드화와 비대면 소비·생활방역·힐링문화 등 시대적 니즈(Needs)와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읍 구절초 등 기존 향토자원과 최근 민간투자 조성되고 있는 라벤더를 연계시켜 새로운 향토자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 기본방향과 분야별(농업·관광·산업·도시재생·브랜드) 추진전략, 발전전략 세부과제에 대한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향기경제 중장기 선순환 구조 체계 구축 및 산업화 육성 로드맵 비전 ▲향기 브랜드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방안 등과 이를 성공하기 위한 향기도시(경제) 육성 4개 비전 전략(산업별·조직별·사업별·홍보)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일반산단 복합문화체육센터 첫 삽

국내 최고 식품전문 특화산단으로 도약하는 ‘고창일반산단’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여가 활성화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고수면 고창일반산업단지 안쪽 부지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했다.

신축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대련실)과 문화시설(작은도서관 및 작은독서당)은 물론, 산업단지 지원시설(일자리지원센터)과 유아시설(유아체육실 및 직장어린이집)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총사업비 100여원을 들여 내년 말 준공 계획이다.

군은 그간 공모를 통해 제안된 설계

를 바탕으로 고수면 지역대표와 입주 예정기업 등에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동시에 현장 지질조사 등을 통해 신축부지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증한 후 첫 삽을 뜨게 됐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고창군은 알짜 기업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고창군청 행정목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산업단지내 문화·체육·편의 시설이 갖춰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취미활동을 돕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통해 청·장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